

##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 전시회

수신 : 제 시민사회단체

발신 :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원회(가칭) [제안자 : 권오현, 김혜순(양심수후원회), 김명환(민주노총), 김호철(민변), 박래군(인권재단), 박석운,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장남수(유가협), 조순덕(민가협)] \*제안자는 가나다 순으로 앞선 단체에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제목 :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원 요청의 건

연락 :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1.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실현 인권 사회를 위해 함께 투쟁 하는 제 단체에 연대 인사드립니다.

2. 올해는 광주민주항쟁 40년,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전시회를 오는 5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추진하려 합니다. 전시회는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국가보안법 전시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제안서를 살펴봐 주십시오.

3. 귀 단체에 요청드리는 것은 추진위원회에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추진위원은 단체와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추진위원은 전시와 도록 등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단체 : 5만원 이상

-개인 : 1만원 이상

-국민

-1차 마감 : 2020년 3월 15일(일)

-2차 마감 : 2020년 4월 15일(수)

4. 죄송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위원회 회의와 출범 기자회견을 모두 온라인과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추진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 함께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전시 관람, 홍보 등을 요청드립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원회**

[제안서]

##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원회(가칭)

### 1. 취지

2004년 대대적 국가보안법(보안법) 폐지 운동 이후 10년 동안 보안법 폐지운동은 소강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응단위가 만들어져 활동하거나 법이 만들어진 12월 1일을 기점으로 토론회 등의 행사는 있었지만, 대중적 흐름으로 만들어나가는 운동은 어려웠습니다. 보안법은 중요사업으로 제기 되더라도 집행력을 갖고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보안법 사건과 우리 안에 체화된 자기 검열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민사회로 들어온 젊은 활동가들조차 보안법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전무했습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폐지연대(폐지연대)조차 실제 활동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태로 소집권자만 남기고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법폐지운동에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어떤 사업과 활동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몇 사람들이 모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보안법폐지운동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논의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로 모아졌습니다. 이것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고 통일과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보안법을 ▲역사의 유물로 만들어 버리자는 선언이며 동시에 언젠가 ▲보안법이 폐지되는 날, 보안법의 폐해를 기록해서 박물관에 전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박물관건립은 물질적 인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선 전시회 사업을 통해 어떤 것이 박물관에 기록, 전시될 것인지 경험해보려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후 보안법이 폐지되고 역사의 유물이 되었을 때, 아카이빙되고 시민들에게 공개될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로 사그러진 보안법 폐지투쟁의 불씨가 지펴지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는 보안법의 역사와 쟁점, 보안법의 주요 인물들을 드러내는 양적 전시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구술작가단과 함께 진행한 ‘여성서사를 통해 본 국가보안법’ 채록을 인물별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보안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일상 속의 억압과 인권침해를 발견해 내, 보안법 폐지 필요성에 관하여 새로운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과 활동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 2. 목표

- 보안법에 대한 관심을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불러내는 기회.
- 보안법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단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법이 아닌 국민 모두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

## 국가보안법을\_박물관으로

하는 법률이었음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계기.

-보안법을 총선이후 열리는 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만들어 내는 계기.

### 3. 추진 내용

-국가보안법을\_박물관으로 전시회 추진위원회를 구성,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국가보안법 전시를 진행 한다.

-추진위원회는 평화, 통일, 인권,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을 위원으로 출범 한다.

-전시를 위한 펀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관이나 개인들 후원자를 모집해서 해결 한다.

-전시의 실무는 기획단을 구성하고, 상근 실무자를 둔다.

### 4. 전시회 내용

-제목 :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 전시회

-기간 : 2020년 05월 12일(화) - 6월 14일(일)(약 1개월\_월요일 휴무)

-장소 : 민주인권기념관(중앙정원, 1층, 4층, 5층)

-내용 : (양적전시)국가보안법 역사, 사건, 쟁점 (질적전시)여성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조형물) 국가보안법과 싸우는 사람들 \*내용은 자세한 기획이 완료되면 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부대행사 : 개막문화제, 강연, 이적표현물 도서전 등

-예산 : 5천만 원 예상

### 5. 추진일정

-3월 4일부터 제안서 회람 및 추진위원(단체), 추진위원장 제안

-3월 16일 추진위원회 출범 보도자료 배포, 클라우드 펀딩 시작

-4월 2일 목요일집회 참석, 추진위원장단 간담회 진행 \*만일 코로나 등 문제 생길 경우 일정 변경 가능

-5월 12일 전시 시작